

ISTANS insight

Insight

설비투자 호조, 본격적인 경기 회복 모멘텀의 신호인가?

제 12호 2007. 6

www.istans.or.kr

Insight

국내 설비투자, 회복 청신호

- 1' 금년 설비투자, 6.8% 확대 전망
- 1' 제조업 설비투자, 반도체·자동차·철강이 주도
- 2' 비IT산업과 비제조업의 설비투자, 전년대비 투자릿수 확대 전망
- 3' 중소 제조업의 설비투자, 내수회복에 힘입어 봄바람
- 3' 대기업은 신제품 생산, 중소기업은 설비확장 투자에 활발

국내 설비투자, 사업간 격차와 수입의존 등 리스크 요인 상존

- 4' 산업별로 설비투자 큰 격차
- 4' 우리 설비투자, IT경기의 부침에 민감한 영향
- 5' 설비 투자의 수입 자본재 비중, 지속적으로 증가

설비투자의 활성화, 장기적인 로드맵으로 접근해야

- 6' 투자마인드 회복과 투자여건 개선이 우선 필요
- 6'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한 설비투자 창출
- 6' IT산업, 부품·소재의 기술력 확보 시급

Inside

미국과 일본의 설비투자 증가세, 꾸준히 이어질 전망

- 7' 최근 부진했던 미국의 설비투자, 증가세 이어질 전망
- 7' 일본의 설비투자, 16분기 연속 증가
- 7' 일본의 설비투자 회복, 대기업과 제조업이 견인

EZ

- 8' 철강업계, 2011년까지 11조원 투자
- 8' 반도체 설비투자, 급랭

Frontier

- 9' 친환경 기름 '바이오디젤' BD20, 공급 시작
- 9' 포스코, 세계 첫 파이넥스 상용화 성공

Focus

- 10' 주요 산업별 설비투자

, 6.8%

2007년 국내 설비투자는 지난 1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11.2% 증가하면서 2007년 전 산업의 설비투자는 지난해의 전년대비 7.1% 증가에 이어 6.8%의 안정적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의 설비투자는 2000년에 비해 겨우 1.8% 늘어나는 데 그쳤고, 10년 전인 1996년과 비교해도 11.4% 증가하는 데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설비투자가 다시 늘어남에 따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다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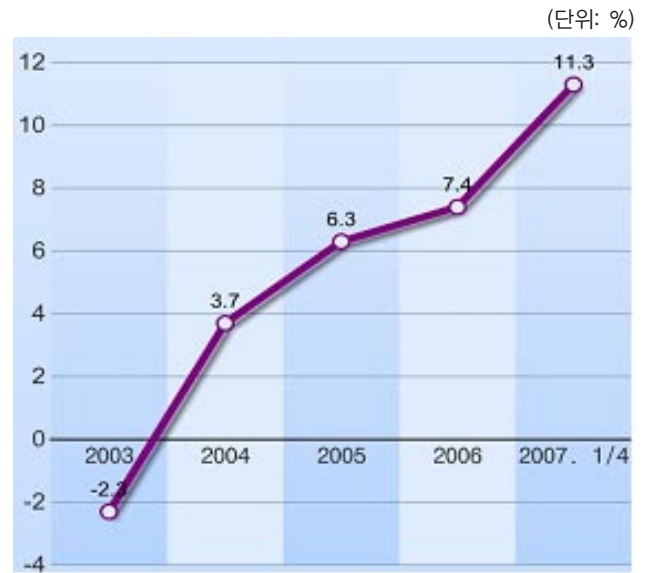
그러나 그 중 비중이 큰 제조업의 설비투자는 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해의 5.8% 증가에 비해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이는 비IT산업의 투자가 전년대비 1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총투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T산업의 투자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단위 : 조원, %)

	금 액			증감율	
	2005	2006	2007	2006	2007
전산업	75.8	81.2	86.7	7.1	6.8
제조업	44.9	47.4	47.8	5.8	0.8
IT	21.6	20.3	17.3	△5.9	△14.6
비IT	23.3	27.1	30.5	16.3	12.5
대기업	42.2	44.4	44.9	5.2	1.1
중소기업	2.7	3.0	2.9	11.1	△2.0
비제조	30.9	33.8	38.9	9.1	15.3

자료: 산업은행, 주요 기업의 2007년도 설비투자 계획, 2007.3

제조업의 설비투자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1.1% 증가하고, 2006년 11.1% 증가율을 기록하였던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는 올해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료: 통계청
주: 2007년 1/4분기는 전년동기비 증가율

(단위: 조원, %)

	금 액			증감율	
	2005	2006	2007	2006	2007
제조업	44.9	47.4	47.8	5.8	0.8
IT	21.6	20.3	17.3	△5.9	△14.6
반도체	18.5	17.2	14.1	△7.0	△18.3
비IT	23.3	27.1	30.5	16.3	12.5
철강	4.6	5.2	5.3	14.0	0.7
자동차	4.3	4.1	4.3	△6.0	6.6
석유화학	2.3	2.9	3.7	24.6	26.5
조선	1.2	1.6	1.9	33.0	18.7

자료: 산업은행, 주요 기업의 '07년도 설비투자 계획, 2007.3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이 설비투자 규모와 최근 생산증가율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제조업의 설비투자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산업의 설비투자도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의 설비투자는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제품생산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자동차와 철강 산업의 경우 지난해의 대규모 투자이행에 이어 금년에도 신차 및 신형엔진 개발(자동차), 파이넥스 설비투자 및 일관제철소 건설(철강) 등에 전년 수준의 투자가 계획되고 있다.

(단위: %)

순위	1994 →98	1999 →2002	2003	2004	2005
1	반도체 (15.0 →22.3)	반도체 (29.4 →33.5)	반도체 (38.5)	반도체 (49.2)	반도체 (41.2)
2	철강 (13.3 →18.7)	자동차 (11.6 →11.5)	자동차 (14.6)	자동차 (10.0)	자동차 (13.7)
3	자동차 (11.6 →11.8)	철강 (9.0 →9.7)	석유화학 (6.4)	철강 (7.4)	철강 (10.2)

자료: 산업연구원, 차세대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주요 산업별 투자 로드맵, 2007.3

특히, 철강(29.6%), 석유화학(23.7%)산업의 2000~2005년 기간 중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은 제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소재산업군의 경우, 투자환경에서 국내 생산능력 중심이던 과거와는 달리 글로벌 단계로의 전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설비투자 자체보다는 연구개발이나 신제품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혁신형 투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차원에서의 해외생산 설비투자는 물론 차세대 자동차의 개발이 경쟁적으로 전개되면서 대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도 요구되고 있다.

2000년 이후 투자증가율에서 철강산업에 이어 두 번째인 조선산업의 경우최근 세계 조선시장의 활황국면을 잘 반영하여 순조로운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시장의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추격, 일본의 투자 재확대 등 글로벌 경쟁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향후 국내 조선 산업의 투자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산업연구원, 차세대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주요 산업별 투자 로드맵(2007.3)**

(단위: %, 억원)

	설비투자 증가율 (2000~05)	생산액 증가율 (2000~04)	설비투자액	
			투자액 (2005)	투자전망 (2006)
자동차	16.9	13.1	61,487	68,420
조선	27.4	12.5	12,082	12,960
일반기계	12.1	11.4	6,529	9,405
철강	29.6	15.4	45,988	55,503
석유화학	23.7	10.9	23,460	33,758
섬유	-7.5	-2.9	4,267	5,577
반도체/디스플레이	12.7	13.6	184,893	175,711
디지털TV	9.0	18.5	10,958	9,170
가전	7.2	14.7	7,720	9,950
통신기기	-6.7	13.8	7,552	10,872
컴퓨터	-16.2	-17.6	709	603
바이오	22.6	8.4	4,847	4,760

자료: 설비투자(산업은행), 생산액(통계청)

IT

비제조업의 설비투자는 전기가스, 통신서비스, 운수 등 주요 산업에서의 투자호조로 전년대비 15.3% 증가할 전망이다.

전기부분의 투자는 원자력, 화력 등 발전부문 및 송·변전 부문의 투자확대로 전년대비 24.6% 증가하고, 가스부분 설비투자는 LNG 전국 공급 사업에 따른 공급시설 증설로 전년대비 1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산업은행, 주요 기업의 '07년도 설비투자 계획(2007.3)**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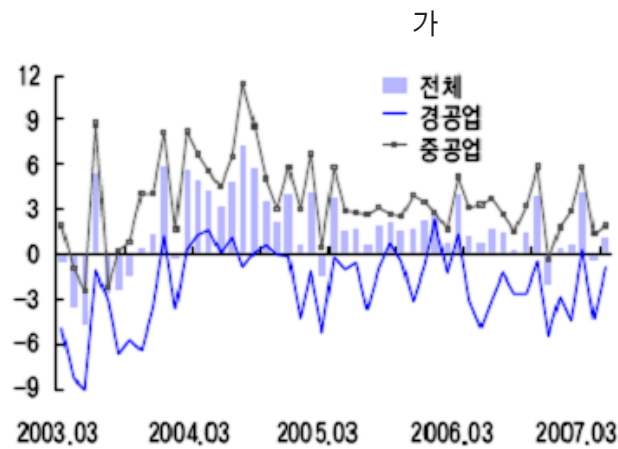
	금 액			증감율	
	2005	2006	2007	2006	2007
비제조업	30.9	33.7	38.9	9.1	15.3
전기가스	8.9	10.4	12.8	17.8	22.4
통신서비스	6.0	6.7	7.9	12.0	18.0
건설	7.3	6.1	6.5	△17.5	7.9
운수	3.6	4.3	4.8	18.9	13.2
유통	3.2	3.7	4.0	16.8	6.8

자료: 산업은행, 주요 기업의 '07년도 설비투자 계획, 20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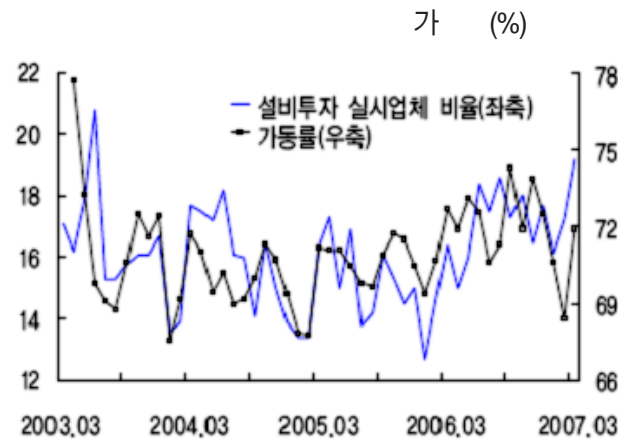
2007년 1분기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하여 지난해 하반기의 0.6%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겨우 1%대의 미미한 증가에 그쳤다. 산업간 격차는 여전하지만, 중공업은 전월대비 증가 폭이 1.4%에서 1.9%로 미미한 반면, 경공업은 -4.3%에서 -0.6%로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2007년 3월 평균 설비가동률은 71.9%를 기록하여 연초 2개월의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났지만, 1분기에는 70.3%로 전분기의 72.8%보다 악화되었다. 올 3월 설비투자 실시업체 비율은 19.2%로 2006년 3월의 16.4%, 전월의 17.2%보다 모두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업계 설비투자 활동의 완만한 개선 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설비투자를 위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투자 증가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기업은행, 금융경제브리프(2007.6)** ■



자료: 기업은행, 금융경제브리프, 2007.6



자료: 기업은행, 금융경제브리프, 2007.6

올해 기업규모별 총 투자액 대비 생산능력 확충 투자 비중을 살펴 보면 대기업은 72.5%, 중소기업은 71.6%로 각각 나타났다.

유지보수 투자 비중은 대기업(14.1%)과 중소기업(13.7%)이 비슷한 수준이며, 연구개발용 설비에 대한 투자 비중에 있어서는 대기업(4.2%)이 중소기업(2.8%)에 비하여 월등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산업은행, 주요기업의 '07년도 설비투자 계획(2007.3)** ■

()
(단위 : %)

	대기업			
	구성비		증감률	
	2006	2007	2006	2007
생산능력 확충	73.2	72.5	7.7	0.0
신제품 생산	31.5	33.9	Δ2.9	8.6
기존설비 확장	41.7	38.6	17.3	Δ6.4
합리화	16.0	16.8	Δ2.5	6.1
유지보수	13.4	14.1	Δ5.3	6.2
자동화	2.0	2.1	41.6	7.3
에너지 절약	0.6	0.6	Δ30.4	Δ0.5
연구 개발	4.0	4.2	Δ54.1	5.6
기타	6.8	6.5	Δ25.8	Δ2.1
계	100	100	-	-

자료: 산업은행, 주요기업의 '07년도 설비투자 계획, 20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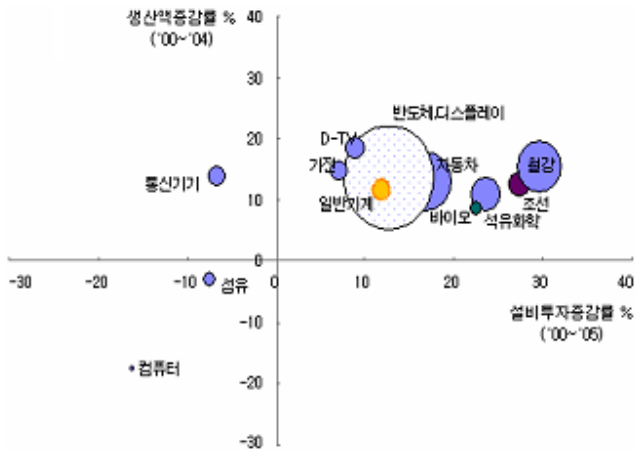
()
(단위 : %)

	중소기업			
	구성비		증감률	
	2006	2007	2006	2007
생산능력 확충	64.9	71.6	9.2	6.4
신제품 생산	22.6	21.5	28.0	Δ8.3
기존설비 확장	42.4	50.1	1.3	14.2
합리화	19.6	17.5	10.6	Δ13.6
유지보수	16.6	13.7	15.8	Δ2.4
자동화	2.3	3.0	Δ7.3	26.4
에너지 절약	0.7	0.8	Δ23.7	17.7
연구 개발	2.5	2.8	Δ12.1	11.7
기타	13.0	8.1	51.3	Δ40.9
계	100	100	-	-

자료: 산업은행, 주요기업의 '07년도 설비투자 계획, 2007.3

2000년대 이후의 설비투자과 생산 증가율 변화를 산업별로 비교해 보면, 우선 설비투자 규모에서 산업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조업의 올해 투자는 25.3% 늘어나는 반면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은 17.1% 증가에 그쳐, 제조업과 비제조업간 설비투자 비중이 지난해 69.6 대 31.1에서 올해 7대 29로 격차가 더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제조업 간에도 설비투자를 주도하는 소수의 산업이 제조업 전체의 설비투자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



자료: 산업연구원, 차세대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주요 산업별 투자 로드맵, 2007.3

특히 섬유, 컴퓨터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비투자 규모도 작을 뿐 아니라 투자와 생산의 증가율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산업의 위상이 하락세임을 보여주고 있다. 통신기기산업도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생산을 확대하는 추세여서 국내 설비투자는 감소하고 있다. **자료: 산업연구원, 차세대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주요 산업별 투자로드맵(2007.3) ■**

, IT

국내 설비투자가 지나치게 전기·전자 등 정보기술(IT)에 집중되고 있어 우리경제 전체의 산업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경기변동에 따른 취약성을 크게 높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우리나라 설비투자는 전체투자규모의 60~80% 내외를 IT산업이 차지할 정도로 높은 IT산업 편중도를 나타내고 있어 IT경기의 부침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다.

반면, 일본의 설비투자는 2005년 기준 IT 20%, 자동차 40%, 화학·기계 각 20% 로 주요 산업이 고른 비중을 차지하며 한국과 달리 산업간 포트폴리오에서 안정적이다.

4

(%)

(단위 : %)

2.7	기계	19.8
15.8	화학	20.5
19.9	자동차	38.6
61.5	전기전자(IT)	21.0
한국(2006년)		일본(2005년)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이와 같이 우리나라 설비투자의 IT산업 편중도가 높은 것은 최근 산업 구조가 IT산업에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 주력산업인 철강, 화학, 자동차 등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새로운 설비투자 수요를 창출시키는 연구개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미진하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비투자 행태의 한·일간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2007.6) ■**

가

설비투자의 수입 자본재 의존도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38.6%에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세를 나타내 2001년에는 32.6%로 하락하였다. 하지만 2002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설비투자의 수입 자본재 의존도는 2003년 40%대를 상회한 이후 2005년에는 51.7%로 급증하였다. 이는 국내 기업이 시행한 기계장치에 대한 설비투자 중 절반 이상을 수입 자본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설비투자	기계류	특수산업용 기계	정밀기계
2000	37.0	43.2	81.9	82.2
2001	32.6	40.9	48.9	83.6
2002	34.3	42.7	49.2	84.8
2003	40.9	48.5	51.8	86.8
2004	49.3	54.5	54.3	90.7
2005	51.7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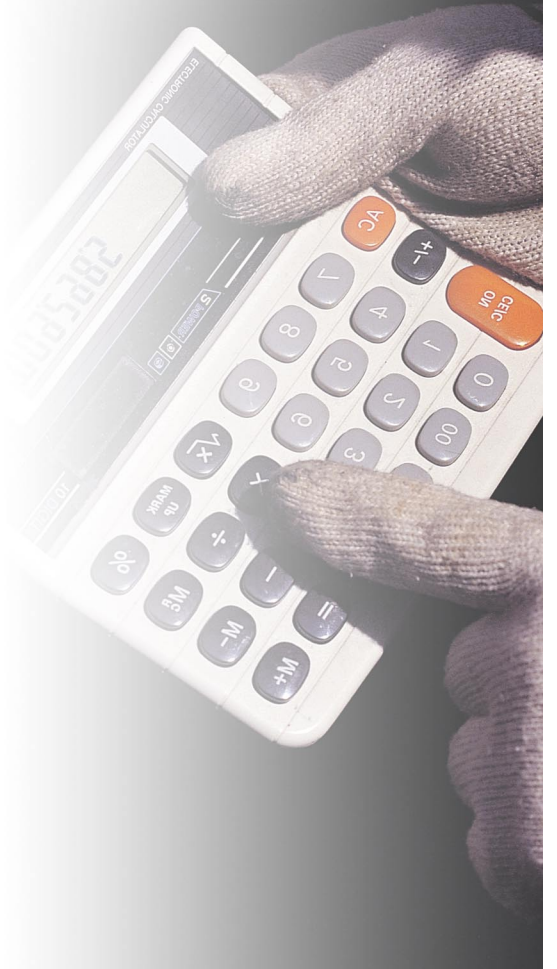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소

이처럼 설비투자의 수입자본재 비중이 급상승한 것은 국내 산업이 IT위주로 재편되는 등 최근 국내 산업 구조변화에 크게 기인한다. 반도체, 영상음향통신 등 IT산업이 국내 경제성장을 주도하였지만, 소재나 부품, 장비 등의 기술수준 취약으로 핵심부품과 장비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중간재(서비스 제외)의 국산화율은 36%에 불과한 반면, 정보통신제품의 수입에서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0%에 달하고 있다.

수입 자본재에 의한 설비투자의 시행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재 수입은 정의상 설비투자에 포함되므로 일차적으로 설비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수출기업의 설비투자에서 수입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이차적으로 국내 자본재 생산기업의 설비투자로 확산되는 효과가 축소되므로 수출의 설비투자 유발효과는 상당 부분 제약된다. 또한 수출품 생산을 위한 수입중간재 비중이 높아질수록 국내 중간재 생산 기업의 설비투자 유발효과가 축소되어 수출의 설비투자 유발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대외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환율변동이 가져다주는 파급 효과는 매우 큰 편이다. 원고로 인한 수출 기업의 채산성 하락도 기업 투자 확대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율과 수입 자본재의 비중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자본재 수입은 곧바로 설비투자 증가로 연

결된다. 최근까지는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모습이거나, 기업들의 손익분기점에 점차 가까워지는 환율 수준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한국은행, 주력성장산업으로서 IT산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2007.3)/삼성경제연구소, 2007년 설비투자의 세 가지 위험요인(2007.1) ■



장기적인 설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 등 기업들의 투자애로 해소를 통한 투자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 확대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마인드 회복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기업의 부채비율 하락을 통한 기업 재무구조 조정 마무리와 수익성의 개선은 영업확장에 필요한 설비투자를 확충하기 위한 긍정적 여건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같은 회복세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어온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주력산업 분야에서 신규 설비투자 유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R&D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는 기술과 제품의 혁신을 가져와 신규 설비투자를 가능케 할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투자의 불확실성 제거,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을 통해서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내외 기업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자료: 산업연구원, 최근 설비투자 동향과 시사점(2007.6) ■**

중장기적인 투자 확충방안으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한 설비투자 창출도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서비스 산업을 포함하는 비제조업 부문의 신규 설비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국내 비제조업체들의 설비투자는 정부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친 기간과 최근을 제외하고는 계속 하락세였다. 1960년대 이래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추구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 비제조업 중 특히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경제규

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생산성도 선진 외국에 비해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글로벌 아웃소싱의 확대와 경쟁을 통한 국내 사업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은 사업서비스를 중간투입으로 사용하는 제조업 부문의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높여 신규 설비투자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2007년 설비투자의 세 가지 위험요인(2007.1), 산업연구원, 최근 설비투자 동향과 시사점 (2007.6) ■**

IT , .

전통산업의 성장 견인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IT산업에 자본과 인력을 집중시킴으로써 IT강국의 명성을 쌓아 왔다. IT 산업이 우리나라의 수출이나 성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아직까지 매우 크지만 최근 동 부문의 생산과 수출이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설비투자 둔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IT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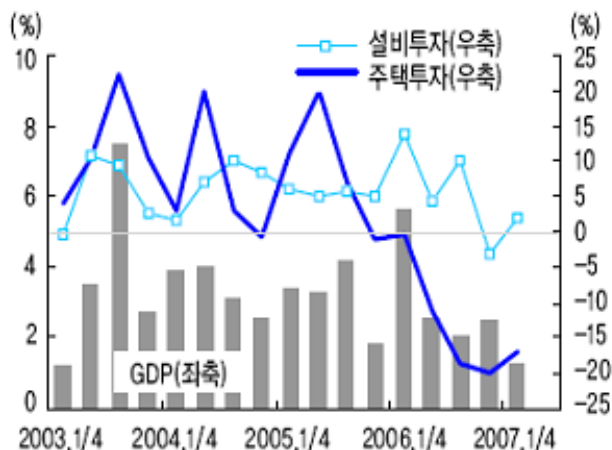
특히, 부품·소재의 높은 수입의존도 때문에 IT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출 품목은 갈수록 첨단화되는데 반해 국내 산업의 기술부족으로 중간재 및 자본재의 수입 의존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리 IT산업이 일본과 중국 사이의 넷 크래커 신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3대 품목에 편중된 IT산업 구조를 바꿔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취약한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과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하다. 이에 국내 IT업계는 외국 기업 혹은 국내 기업 간 M&A 등을 통해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고 부품·소재기술의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2007년 설비투자의 세 가지 위험요인(2007.1) ■**

가 ,

, 가

2007년 1분기 미국 경기는 예상보다 큰 성장세 둔화를 나타냈지만, 경기부진이 주택투자와 일부 제조업에 국한되었고, 전반적으로는 아직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설비투자는 2006년 4분기 감소(-3.1%)에서 2007년 1분기 증가(2.0%)로 전환되었고, 기업의 양호한 재무상태와 높은 수익성,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의 금리 등 우호적인 투자 여건이 형성되어 있어, 향후에도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자료: 기업은행, 금융경제브리프(2007.6)** ■



자료: 기업은행, 금융경제브리프, 20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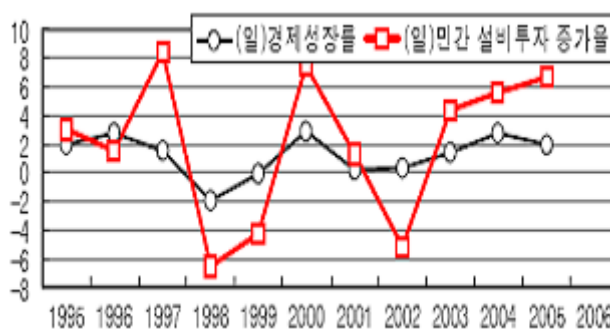
, 16 가

일본의 설비투자는 지난 2003년부터 제조업 부문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설비투자 회복세가 비제조업 및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6년 들어서는 대기업 설비투자가 다소 감속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및 비제조업 부문에서 설비투자 확대 추세를 주도하고 있다.

2007년 1분기 일본의 전 산업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3.6% 증가한 17조 7,287억 엔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5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에 이어 16분기 연속 증가한 것으로서, 금액기준 설비투자규모에서도 거품경제 말기였던 1991년 1분

기의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였다. 2006년 4분기 (16.8%)보다 증가율에서 둔화되었지만 10%를 계속 상회하였다는 점에서 일본 기업들의 설비투자 의욕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 (%)



산업별로는 그동안 전체 설비투자를 견인해온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와 전기가 각각 4.2%와 6.1% 증가했다. 조선은 작년에 15.0% 감소하였으나 올해는 41.1% 증가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로 선회하였다. 또 장기적인 경기 확대와 기업들의 생산 증가로 에너지·수송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력부문의 투자가 전년동기 대비 28.3%, 철도·버스 부분의 그것이 18.9% 증가하였다. **자료: 일본 재무성 법인기업통계, 니혼게이지아신문** ■

최근 일본의 설비투자 회복은 대기업과 제조업이 견인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순으로, 산업별로는 제조업→비제조업 순으로 투자가 각각 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설비투자 증대가 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할 뿐 아니라 부품·소재 부문 중소기업의 생산 증가에 따른 설비투자 증대로 이어지는 투자 연계 효과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비제조업의 설비투자를 견인하는 것은 제조업의 설비투자 증대가 기업 고용 증대, 민간 소비 확대, 서비스업 수요 증대로 이어져 비제조업의 설비 증대로 이어지는 투자의 선순환 효과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일본 투자 회복의 비밀(2006.9)** ■

- , 2011 11
- ,

, 201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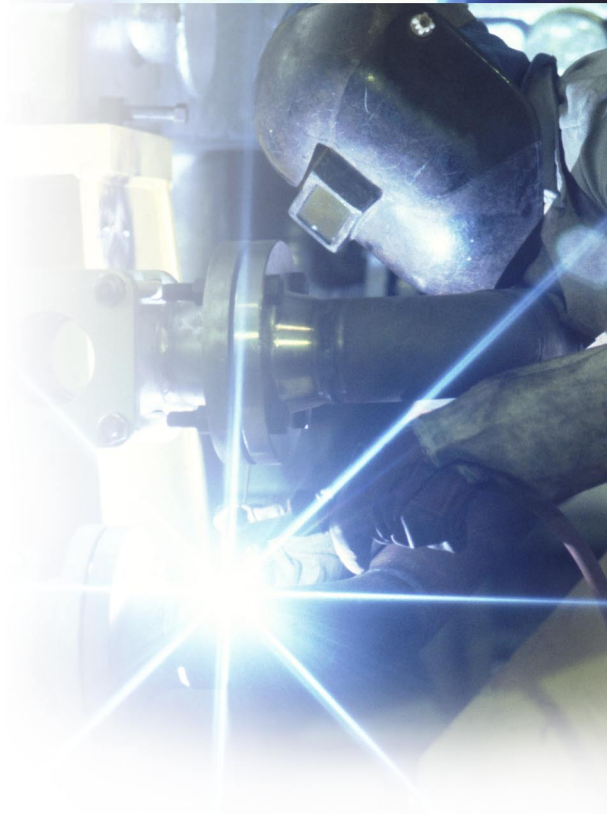
현대제철의 고로(高爐)사업 진출에 이어 동부제강이 전기로 사업에 뛰어들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제철 삼국 시대'에 들어갔다. 냉연업체인 동부제강이 상공정과 하공정을 아우르는 종합제철사업에 뛰어들어 하반기에 동부제철로 회사명을 변경할 계획이다. 동부제강이 제철 사업에 뛰어든 것은 열연제품의 공급 부족 때문으로, 세계 철강수요는 꾸준히 늘어나는데 원자재인 열연을 확보하기 어려우니 직접 쇳물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게 국내 철강업체들의 판단이다.

국내 철강업체들은 철강경기 호조와 수요증가에 힘입어 2011년까지 국내 설비증설에 11조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이 5조 2천억원, 포스코 4조 2천억원 등 국내 4대 철강업체가 직접 밝힌 투자액만 10조 8천억원에 이른다. **자료: 한국철강협회(2007.3) ■**

올해 세계 반도체 업체들의 설비투자가 전자제품 판매 저조와 재고 증가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다소 위축될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에 의하면, 2007년 세계 반도체 자본설비투자는 전년대비 3.2% 감소한 406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설비투자의 감소는 2006년에 높은 가동률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 2007년에는 상대적으로 투자가 위축된 것이나 2008년에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14.9% 증가한 467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Gartner Dataquest, 세계 반도체 자본설비 투자전망 (2007.4) ■



, BD20

'BD20,

지난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차량정비사업소 앞 부지에 서울시가 차린 '서울에코스테이션'에서 바이오디젤20(BD20)을 공급하게 된다. BD20은 경유 80%에 대두유 등으로 만든 바이오디젤이 20% 섞여 있다.

BD20을 사용하면 일반 경유보다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는 물론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독성 물질의 배출을 13~21%씩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서울시에 이어 제주도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도 BD20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바이오디젤 원료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전남, 전북과 제주도 등 3개 지자체는 올해 각각 50만평씩 총 150만평의 유휴 농경지에서 유채 생산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앞으로 3년 동안 국고와 지방비 등 모두 26억원을 지원해 유채 재배능가가 생산한 물량을 전량 구매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의 참여 움직임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즉 관련업계는 카사바와 자트로파 같은 낫선 이름의 식물들을 대상으로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다. 아열대지역에 널리 분포하는 카사바는 고구마와 비슷한 식물로 뿌리에서 녹말 성분을 추출해 바이오에탄올을 만든다. 최근 창해그룹이 파푸아뉴기니 정부로부터 대규모 토지를 무상 임차해 카사바 재배사업에 들어갔다. **자료: 서울시, 맑은서울추진본부 보도자료(2007.4.2)** ■

포스코가 제2의 제철기술 혁명으로 불리는 파이넥스(FINEX) 공장을 세계 최초로 상용 가동하는 데 성공, 세계 철강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2004년 8월 착공해 이날 준공한 파이넥스 상용 설비에는 총 1조600억여 원이 투자됐다.

파이넥스 공법에서 나오는 대표적 환경오염 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발생량은 기존 용광로 공법의 3%와 1% 수준에 불과하다. 비산먼지도 용광로 공법의 28% 수준으로 크게

낮출 수 있어 온난화,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공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파이넥스 공정을 개발하게 된 근본 이유는 기존 제철의 기본 용광로 공정이 앞으로 계속 운영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 개발 연구가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가루 상태의 철광석과 일반 석탄을 사용하여 선철을 생산하는 공정은 위 두 가지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DIOS(일본)법, HISMELT법(호주) 그리고 파이넥스공법이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있었다. 파이넥스 공정은 반응기 내에 석탄 연소에서 만들어지는 일산화탄소의 바람을 강하게 흘려서, 분말 상태로 투입된 철광석을 부유 상태에서 환원하는 방법이다. 포스코가 이번에 가장 먼저 150만 규모의 파이넥스 상용화 공장을 준공함으로써 차세대 제철 기술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자료: 한국철강협회(2007.6)** ■



(단위: 억원)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계획)
전체산업	485,239	359,638	368,257	466,836	405,356	387,228	433,934	677,598	757,880	811,948	867,179
제조업	336,265	170,125	177,413	244,239	213,299	211,762	264,383	417,824	448,664	474,491	478,184
자동차	29,336	25,007	20,568	28,153	29,063	24,344	38,730	46,720	61,487	58,581	62,618
조선	13,862	2,736	2,676	3,597	7,303	6,461	7,417	10,184	12,082	16,064	19,067
일반기계	9,870	2,503	4,476	3,696	4,748	4,912	4,651	6,438	6,529	11,466	13,886
정밀기계	550	506	1,232	1,021	737	726	692	759	1,065	2,220	2,502
음식료	15,578	6,997	7,917	8,630	7,823	10,705	11,288	14,717	12,527	12,894	17,444
의류	n.a	241	311	349	408	319	612	1,514	925	3,421	4,885
섬유	15,915	3,134	4,841	6,293	4,421	3,696	5,404	5,604	4,267	4,919	4,988
철강	43,691	31,225	15,923	12,577	20,286	20,551	16,250	29,634	45,988	52,417	52,765
비철금속	1,707	3,140	1,988	2,643	3,248	3,324	3,200	3,304	3,067	3,675	5,158
조립금속	3,368	1,520	1,139	1,557	2,007	1,466	2,336	3,103	3,089	4,124	3,283
석유화학	18,867	7,052	6,257	8,094	10,287	15,819	14,440	18,148	23,460	29,238	36,991
정밀화학	7,819	7,341	7,493	10,003	7,551	9,007	7,850	10,543	13,771	18,699	16,176
제지	9,792	3,574	2,955	3,378	2,033	1,879	2,259	3,156	4,373	3,245	3,382
시멘트	4,789	3,377	1,086	1,080	1,453	1,861	2,682	2,781	2,430	2,393	1,955
유리	2,450	766	1,679	1,742	2,690	3,625	2,029	11,298	7,877	9,294	10,523
가전	20,064	5,483	5,530	5,462	4,946	4,335	7,338	4,404	7,720	8,986	8,312
컴퓨터	n.a	144	663	1,711	397	701	880	1,521	709	1,816	1,806
통신기기	n.a	1,906	9,119	10,656	4,454	4,736	4,518	6,273	7,552	5,043	9,203
반도체	n.a	38,660	52,243	101,492	71,440	64,382	101,855	190,493	184,893	171,977	140,583
전자부품	63,548	3,651	9,297	7,130	4,533	3,544	7,136	16,319	10,958	10,544	9,501

자료: ISTANS(원출처: 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주: 1) 1998년부터 전자부품은 통신기기,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으로 분리

2) 비철금속은 2005년부터 금속주조업 포함

3) 정밀화학은 비료 제외

ISTANS insight 12

발행일 2007년 6월

발행처 산업자원부 ·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istans.or.kr

총괄 장석인

기획 및 편집 서동혁, 김석희, 김종기, 이임자(DB지원)

제작협력 제이스마이닝

본 리포트는 ISTANS 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ISTANS 홈페이지의 'Industry Report'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산업연구원 ISTANS팀 (02)3299-3183(3217), istans@kiet.re.kr